



동부교육지원청, 적극행정 직장교육

광주 동부교육지원청이 최근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교육청 적극행정 담당자인 권성택 주무관이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주제로 적극행정의 개념, 우수사례와 소극행정 사례를 등을 설명하며 참석자의 이해를 도왔다.

이명숙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찾아가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교육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동부교육지원청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국립목포대, 신규 전문메이커 12명 배출

국립목포대학교 창업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MNU메이커스페이스가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메이커 교육과정 2기’를 통해 총 12명의 신규 전문메이커를 배출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메이커 교육과정’은 제품 개발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지원해 시제품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메이커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100명 이상의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2D 설계 프로그램 이론 교육과 함께 레이저가공기, 아크릴절곡기, UV프린터 등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실습이 진행됐다.

유영재 창업혁신센터장은 “창업을 희망하는 무안군·목포시·영암군 등 지역 주민들의 메이커 교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메이커 문화 확산과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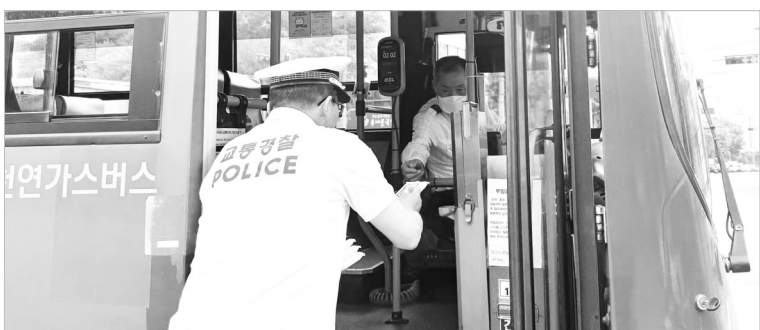


북부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소방용품 지원

광주 북부소방서는 화재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화재안전키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계층이 대상이며, 일부 가구에 시범 지원한 후 내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화재안전키트는 소화기, 연기감지기, 망치후레시, 코팅소방담요, 숨수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보급 시 사용법 및 소방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최환준 기자



광주자치경찰위-북부경찰 안전띠 착용 홍보

광주자치경찰위원회와 북부경찰서는 최근 운수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차식 안전띠 착용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홍보 활동은 ‘타면 착, 안전도 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당부하는 한편, 안전띠 미착用に 대한 계도·단속활동도 병행했다.

정성우 북부서 교통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동강대, 전공·취업 특강으로 학생 실력 향상

보건·의료 역량강화 패키지 입사지원서 작성·미술 강의

동강대학교가 전공·취업 지원 특강을 비롯해 재능기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실력을 더욱 탄탄히 하고 있다.

3일 동강대에 따르면 동강대 방사선학과는 최근 교내 보건관에서 3학년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역량강화 패키지 과정’을 진행했다.

‘역량강화 패키지 과정’은 광주·전남 주요 전략산업 분야를 연계한 지역 거버넌스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맞춤형 상담과 정보 제공 시간으로 마련됐다.

방사선학과는 현직자 멘토링에 이어 효과적인 자기소개 및 질문 응답 전략 등 완벽한 면접 준비를 위한 특강을 열었다.

또 병원분석 특강 시간에는 의료법에 의거해 분류된 병원 개념 정리와 특징, 방



동강대학교 K-뷰티아트과 학생들이 교내에서 미술 특강을 들으며 예술적 역량을 키우고 있다.

동강대 제공

사선사 업무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류영환 교수는 “학생들이 특강을 듣고 방사선사 업무와 병원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K-뷰티아트과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K-뷰티아트과는 미술 특강과 입사지원서 작성 특강을 마련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였다.

또 북구 양산초교 체육관에서 열린 ‘북구가족센터 가정의 달 행사’에서 체험 부

스를 운영하고 그동안 갖고 묶은 실력을 뽐내는 재능기부 활동을 펼쳤다.

정선주 교수는 “학생들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특강에 이어 봉사활동을 통해 향후 사회 진출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전남교육청 ‘글로벌 신산업 창업체험’ 성료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의 메카인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일원에서 ‘글로벌 신산업 창업체험 프로젝트 국내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체험활동은 로봇, 인공지능(AI) 분과로 선발된 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캠퍼스 창업체험센터 챌린지 프로그램 체험과 세계 우수 기업체 탐방을 통해 창업가정신과 시장분석과 같은 실용적인 창업역량을 키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학생 사전캠프에 이어 3월부터 비대면 기반 교육과정도 이뤄졌으며, 이번 프로그램에는 학생과 지도위원, 지도교사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국내 체험활동은 △MVP(최소기능제품) 개념이해 및 제작 △스타트업 투자 유치 방법 이해 및 IR 피칭 △크라우드펀딩

대표 기업체 와디즈 및 네이버 본사 등 탐방 △로봇 및 AI 스타트업 대표 창업가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국내체험활동에 이어 오는 8월에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체류형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그 성과를 J-스타트업 모의투자 설명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글로벌 신산업 창업 체험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진로 개척 능력을 키워 자신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정주하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면서 “전남의 학생들이 소통, 협업 및 책임감을 키우고 도전정신과 성취감을 느끼면서 창업가정신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호남대 뷰티미용학과 ‘국제 이·미용대회’ 입상

호남대학교 뷰티미용학과 재학생들이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10회 BIS컵 국제 이·미용기능경기대회 & 2025 소상공인 이·미용공모전’에서 전원 입상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3일 호남대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사)한국뷰티산업개발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제올림픽위원회한국위원회가 후원해 개최됐으며, 국내외 이·미용 분야의 우수 인재들이 대거 참여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뷰티미용학과 학생들은 헤어, 메이크업, 네일아트 등 전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을 선보이며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했다.

대상을 수상한 주민정 학생은 “매 대회마다 꾸준히 연습해온 노력이 결실을 맺게 돼 기쁘고, 헌신적으로 지도해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헤어미용에 대한 자신감이 더욱 커졌고, 앞으로 다양한 대회에 출전해 커리어를 확장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환준 기자



광주교육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설명회

졸업 후 취업지원 정보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최근 분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시민협치진흥원 대강당에서 학부모 200여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입학 및 진로 지원을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자녀의 교육 경로 설계와 사회적 자립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상급학교 진학, 진로 및 취업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진학, 장애영역별(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 맞춤형 입학 정보, 전공과 및 대학 진학 등으로 세분화해 진행했다.

올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연계해 ‘졸업 후 취업지원’을 주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진로 설계에 고민이 많은 학부모들에게 취업 연계 지원 체계와 활용 가능한 제도기관 정보를 제공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학과 진로에 대해 보다 명확한 방향을 세우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며 “학생들의 배움의 여정뿐 아니라 삶의 전환점에서도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광주챔버싱어즈, 희귀난치병 환아 치료비 기탁

전남대병원에 400만원 전달

광주에서 한국교회음악과 합창음악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챔버싱어즈가 전남대학교병원에 희귀난치병 환아 치료비 400만원을 기탁했다.

3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병원 6동 7층 세미나실에서 윤현주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김호영 공공보건의료사업팀장 등 병원 관계자와 광주챔버싱어즈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난치병 어린이와 사랑 나누기 희망더하기’ 기부금 전

달식이 열렸다.

광주챔버싱어즈는 2004년 창단해 정기 연주회와 각종 음악회 출연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꾸준히 희귀난치병 아이들을 위한 치료비를 기탁해오고 있다.

김형성 광주챔버싱어즈 회장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며 “희귀난치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펼쳐 오랫동안 후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